

체육현상 탐구방법으로서의 질적연구

양 명 환¹⁾

Qualitative Research as a Legitimate Method for Phenomenon Exploration in Physical Education

Yang, Myung-Hwan

ABSTRACT

Physical education research has progressed in both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However an examination of dominant epistemology of many research papers performed during several decades displays the influence of positivism and the scientific method in physical education area. As quantitative research technique has questioned seriously its validity by vigorous dispute,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 as a alternative method has emerged in physical education research field as well as social science. Although the acceptance of qualitative research as a legitimate research method was not easy matter, it has been now accepted by the researchers in sport pedagogy, sport sociology and sport psychology field. At the present time it has become a established research methodology for phenomenon exploration of sport,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class setting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overview developmental possibility of qualitative research as a alternative methodology against quantitative research in physical education field. First, the debate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paradigm was reviewed. Second,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rough a comparis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were explained. Third, the ma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rocedure, and techniques were identified. Especially,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and writing techniques were specified. Forth, new prospect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qualitative research was presented. Further, I emphasized that field research through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rovide physical educators for new knowledge base to understand and explore alternatively physical education phenomenon.

1)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1. 시작하는 말: 문제의 제기

모든 학문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육학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연구방법은 다양할수록 좋다. 체육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해 가면서 신체활동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연구방법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20세기에 이르러 실증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적 연구방법이 학문의 세계를 주도하면서 과학적 방법에 의한 많은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행동이나 사회현상 연구에서 양적 연구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지나치리만큼 편협하게 실증적인 양적 분석기법에 치중해왔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적 패러다임과 질적 패러다임은 분명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물이 질과 양의 속성을 갖고 있듯이 모든 연구는 질적 과정과 양적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 다만 연구의 이면에 전제되어 있으면서 그 연구를 지배하는 철학적 인식론이 질적이냐 양적이냐에 따라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구분하는 것이다.

흔히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구분한다. 이 두 패러다임은 그 기본적인 세계관, 신념, 형이상학적인 원리에서뿐만 아니라 연구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실증주의는 세상의 실체와 그 법칙이 인간의 인식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설의 부단한 수립과 검증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현상학의 경우에는 인간행동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인간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활동을 구성하는 체험의 의미를 기술하고 조명하려 한다. 연구하는 방법 역시 해석하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고 이를 위해 연구자는 탐구대상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서 인간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따지려고 한다. 탐구과정에서는 이론검증과 증명보다는 현상에 대한 기술과 새로운 발견을 강조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태도는 개방적이고 탄력적이며 때로는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무이론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체육학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어느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방법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체육학 연구자가 선택하는 탐구전략과 연구방법은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활동은 자연현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탐구하는 현상의 특징에 따라서 자연과학적 접근방식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유용성이나 타당성을 희생해서라도 체육학 연구는 과학적이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집적 태도는 과학적인 방법론, 좀더 구체적으로 실증적 분석절차의 맹신에 의한 가치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진리로 통하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은 자연과학의 진보라는 개념의 유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등의 자연과학에서도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분야라 할지라도 연구자에 따라서 독특한 자신들 나름의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로지 한가지 과학적 방법론만을 지지하는 것은 그릇

된 것이다(홍기형, 1995).

연구방법은 방법 자체로서 절대적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탐구하려는 문제의 성격에 비추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체육학 연구에서는 탐구하려는 문제의 특성에 아랑곳없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실증적인 방법에 맹신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의 수량화, 객관화, 정확한 측정, 수학적 표현 및 통계적 자료처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방법만이 체육현상을 이해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고 생각하여 왔다.

한 예로서 스포츠심리학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 동기, 성격, 감정 등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정신연습이 운동수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연구결과를 우리의 체육지도자나 코치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수용하고 실제에 적용하고 있는가? 운동지속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질문지로 방대한 인원을 대상으로 다변량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과연 현장 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동안 실증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스포츠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음이 판명되고 있다(유진, 1993). 특히 Martens (1979)는 'About smocks and jocks' 라는 글에서 스포츠심리학 연구는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실이 아니라 스포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 방법으로 스포츠 이론을 탄생시켜야 하며, 인간의 행동은 주관적이고 자주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전통적인 실증주의에 입각한 스포츠심리학 연구논리를 비판하였다.

문제의 해결보다는 과학적 절차와 형식에 젖어있는 맹목적 사고는 어쩌면 체육학 분야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질적인 연구패러다임에 근거한 연구만이 체육학 연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극단적인 입장은 결코 아니다. 연구를 할 때 상충되는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다양성이란 기존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전면적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과학적 방법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내의 체육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최근 체육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한 자료(김문규·윤명희, 2001)에 따르면 체육교수연구의 연구방법은 국내외 공히 양적 연구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 연구는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나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한 연구들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구 초점 및 자료수집 방법 등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체육교육학 분야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으나,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이론적 특성과 장단점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전혀 없이 실제 연구부터 행하여지고 있다(최의창, 2001). 따라서 양적 연구와는 다른 질적 연구의 특징과 이슈들을 소개하고 탐색하는 이론적, 개념적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이다.

이 글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학교의 체육교육 현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현장교사들에게 질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II. 질적 연구의 개념과 특성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다면, 질적 연구법을 활용하는 연구들은 대개가 언어적·시각적·후각적·청각적·미각적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개가 현지노트(field notes), 녹음, 녹화, 그림, 사진, 문서들과 같은 기술적 내러티브(descriptive narratives)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법은 관찰의 기술(description)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적 연구는 현지연구로 대변되며 세부적인 연구방법에 따라서 민속학적(ethnographic), 자연주의적(naturalistic),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참여관찰적(participant observational)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체육학에서는 스포츠나 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자의 직접적인 참여나 관찰을 통해서 분석하고 기술·해석하는 연구로 이해된다.

질(quality)이란 비교와 측정을 통하여 인식되는 관계적 속성인 양(quantity)과는 달리 비교 이전의 상태 또는 측정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즉, 개별적 사물의 고유한 속성이며, 그것을 그것답게 만드는 내재적 속성이다. 질과 양 모두 개별적 사물이 다른 사물과 맺는 관계, 특히 그들간의 차이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질적 인식은 사물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인위적인 개념, 범주, 표준, 척도 등을 통한 부차적인 변형을 최소화하고자 한다(조용환, 2000).

질적 연구에서 “질적”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경험적 근거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이해를 증시하고 어떤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행위가 일어난 환경적 요소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에서 사회현상이나 인간행위에 대한 규명은 경험적 해석, 상황적 설명,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 해석적 이해로 설명된다(김종택, 1998).

질적 연구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사례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연구문제의 해결이나 이론 점검이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연구절차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석학적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Borg와 Gall(1989)은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1) 실제상황에서 총체적인 탐구, 2) 면접과 관찰에 의한 자료수집, 3) 무선표집보다는 임의표집, 4) 귀납적 자료분석, 5)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이론도출, 6) 연구과정 중 방법의 수정과 보완, 7) 연구대상의 지각을 통한 자료의 해석, 8) 가설검정에 직관적 지식의 활용, 9) 사회의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의미 강조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김종택, 1998).

체육학에서의 질적 연구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스포츠나 체육의 현상을 연구대상자의 시각을 통해서 연구한다. 둘째, 연구과정이 유동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연구수행 중 연구문제나 가설 등의 수정이 가능하다. 셋째, 연구결과보다 연구과정을 중시하며, 경험을 근거로 현상을 파악한다. 넷째, 스포츠나 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위나 특정현상을 서술적 방법으로 상황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보다 구체적인 질적 연구의 특성은 양적 연구와의 비교로

가능한데, 연구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연구자료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차이점을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특징 비교

비교준거	질적연구	양적연구
연구의 초점	질(nature, essence)을 통한 현상이나 사건 본질 규명	양(how much, how many)으로 현상의 설명이나 예측
철학적 배경	현상학, 자연주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실증주의 또는 논리적 경험론
사용되는 어휘	인류학적, 민속학적, 주관적, 자연적, 총체적, 해석적, 생활사	실험적, 실증적, 통계적, 개별적, 개관적, 인과적, 경험적
연구목적	이해, 기술, 발견, 가설의 일반화, 근거이론의 개발	예언, 통제, 기술, 확인, 가설검증, 이론 검증
연구상황	실제적, 자연적 상황	인위적, 조작적 상황
대상자와의 관계	공감적, 긴밀하고 직접적, 신뢰강조	제한적, 거리유지, 간접적, 단기적
표본	작고, 임의적, 이론적	크고, 무선적, 대표성
자료수집 도구	연구자의 관찰, 면접	각종 검사도구
자료특성	심층적, 총체적 질적 자료	신뢰롭고 타당한 연속자료
자료분석	연구자의 귀납적 분석	통계기법을 활용한 연역적 분석
결과보고	체계적, 포괄적, 총체적	구체적, 축소 지향적, 정밀성
질적연구의 역할	행위장의 해석수단	준비단계로 활용

자료출처: 김종택(1998)의 자료 수정보완

III. 질적 연구의 절차

전술한 바와 같은 질적 연구의 특징 때문에 질적 연구법을 활용하여 체육현장에서 움직임 현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체육교사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불안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이면에는 질적 연구의 연구과정과 분석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에 대해 비판과 함께 어떻게 해야 질적 연구를 잘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질적인 연구를 만족스럽게 끝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에 대한 방법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학습동기와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양적 연구의 연구설계 개념보다는 오히려 연구자의 활동 자체가 연구과제이고 연구절차이다(Burgess, 1982; 김종택, 1998).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참여자와 관찰자라는 입장을 동시에 가지면서 스스로 자료수집 도구가 되어 제보자들의 주관적인 내부자적 관점과 연구자의 보다 객관적인 외부자적 관점을 통합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계별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질적인 연구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실행하고자 할

때 어떠한 연구 과정 혹은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연구문제(가설설정), 대상자 선정, 자료수집 방법, 분석방법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와 가설 설정

질적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연구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등으로 얻는 예비지식을 토대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하는 연구문제의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양적 연구에서와 같이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새로운 이론의 창출인지, 아니면 체육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인지에 대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연구방법을 고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연구주제만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주제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도출된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변인이나 연구대상 등 개념의 정립에 연구자의 편견이 인정되고 현지연구에서 제반 현지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확정된 가설을 설정하지 못하거나 가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Goetz와 LeCompte(1984)의 설명에 따르면, 양적 연구에서 가설은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이지만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사전에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을 피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질적 연구의 장점중의 하나는 연구수행 중 연구자가 관찰이나 면접에 의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가설을 수정·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는 점이다.

2. 연구대상의 선정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subject)이라는 용어보다는 제보자(informant), 참여자(participant), 현지인(the native), 또는 그 사람들(the people)이라는 용어를 즐겨 쓴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문제 및 목적에 적합한 자료들을 어떤 자료근원(sources)으로부터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LeCompte & Preissle, 1993). 연구자가 어떤 장소나 환경적 상황을 연구지역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연구대상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연구대상도 특정 개인이나 몇 사람으로 제한된다. Goetz와 LeCompte(1984)에 따르면, 질적 연구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설정하고 그 모집단 내의 모든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양적 연구의 확률적 표집과 성격이 다른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 즉 유목적 표집을 통하여 연구사례를 선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사례 선택법, 할당 표집법, 누적적 표집(snowball sampling), 극단적 사례 선택, 전형적 사례 선택, 유명 사례 선택 등 대부분 목적표집의 변형으로서 제보자를 선정한다.

3. 자료의 수집

질적 연구의 조사는 조사연구(survey research)처럼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자의 참여관찰이나 연구대상자의 직접 면접 등으로 현장에서 듣기, 보기, 부호화 작성, 녹음, VTR 촬영 등의 복합적인 작업을 일반적으로 활용한다. 질적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연구방법으로는 참여관찰, 면접, 내용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1) 참여관찰

질적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관찰은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며, 이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현장에 참여하여 관찰, 면접 또는 조사 등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는 연구방법으로서 현지조사(field work)로 대변된다. 이 때 연구자는 특정한 연구현장에서 장기간의 참여관찰과 접촉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언어를 배우고 행동패턴을 관찰하고 나아가 그들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의식, 감정, 신념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는 김영천(1997)이 제안한 4가지의 관찰방식을 요약하기로 한다.

첫 번째 관찰방식은 전체적인 기술법이다. 전체적인 기술방식은 사전에 개발한 특정한 관찰의 범주나 준거를 사용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자연 그대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기술을 강조하는 전체적인 관찰은 첫째,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둘째, 참여자의 의미, 행위, 해석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연구의 기본 가정인 참여자의 내부자적 관점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연구자는 전체적인 기술 방식으로 일기, 연구자의 주관적 감명이나 느낌, 판단, 순간적인 생각들, 방법적 반성노트, 관찰기록들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자원으로 이용한다.

두 번째 관찰방식은 관찰 프로토콜이나 체크리스트에 의한 체계화된 관찰이다. 이 방법은 관찰 이전에 개발한 프로토콜이나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현장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탐구의 목적이나 관찰의 내용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관찰의 과정은 미리 만들어진 준거에 근거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현상을 객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관찰대상을 주어진 프로토콜이나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수량화한다는 점에서 체계적, 객관적 그리고 구조적 관찰로 불린다.

세 번째 방법은 지도 그리기(mapping)이다. 공간연구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던 지도 그리기 방법은 특정 현장의 물리적, 공간적 구조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네 번째 방법은 사진과 비디오 녹화이다. 사진과 필름은 인류학연구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시각인류학, 필름 문화기술지의 중요한 연구방법이 되어왔다. 현장에서 인간의 오감을 사용한 즉각적인 관찰이 갖는 제한점을 기술(technology)를 이용하여 보완시킬 수 있는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는 언어적 기술과 진술이 제공할 수 없는 현장에 대한 보다 근접하고 확실한 장면, 증거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면접

면접(interview)은 연구자와 제보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면접은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구분되고 면접내용의 조직화 정도에 따라서 구조화 면접, 반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생활사(life history), 전기(bibliography), 초점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등의 용어들이 면접과 관

련하여 유사한 의미로서 사용된다.

심층면접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개인적 면접으로 양적 조사연구에서 특정행위나 현상의 피상적인 측정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적 연구의 보완적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심층면접에서 어떤 현상과 사건의 행위 자체 또는 결과에 대한 자료보다는 행위나 사건의 원인과 과정에서 연관된 상황적 요인의 객관적 의식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은 질문지를 통한 방법보다 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다양한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가 가능하며, 연구자에 의한 면접 상황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솔하고 자세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김종택, 1998).

개인면접으로서 일반 제보자 면담은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면접이다. 면접자와 피면접자 1: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으로서 피면접자는 대부분 연구대상의 구성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집단면접은 피 면접자가 2인 이상이 면담에 참여하는 형식을 말하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면담에 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초점집단면접은 집단면접의 한가지 유형으로서 심층분석의 심화 단계에서 사용된다. 초점집단의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개인면접 또는 집단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상당수준의 지식과 식견 그리고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피면접자로 선정하여 재차 면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면접자료의 평가는 면접자와 응답자가 교환하는 정보의 양과 질로서 이루어지는데, 양질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접자의 면접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면접자는 응답자가 편안한 마음에서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복장, 언어, 행동 등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면접자가 취해야할 태도는 중립성, 공정성, 자연스러움, 일상생활의 분위기, 친절, 진지함 등이다.

3) 내용분석

내용분석은 비 구조화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면밀한 해석을 통하여 어떠한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특성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김영천, 1997). 따라서 내용분석은 탐구대상에 있는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의 특징을 특정한 분석기준나 관점에 근거하여 재해석함으로써 메시지에 숨어있는 또 다른 진의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교육현장의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영역에서 사용되는 데, 교과서의 내용분석과 현장산품의 내용분석이 그것이다.

4) 현장조사지

양적 연구의 한가지 방법을 실행되어온 조사연구의 아이디어에 질적 연구의 특성을 가미하여 개발한 질적 형태의 조사지를 말한다. 연구자의 사전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할 목적으로 조사지의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면서 현장의 상황에 근접한 정보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지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김영천, 1997). 흥미도 검사, 운동태도검사, 자아개념검사 등을 연구목적에 맞게 번안하여 새로운 현장조사지로 제작할 수 있다.

4. 질적 자료의 분석

질적 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 체계 그리고 의미부여를 하는 과정으로서 Miles와 Huberman(1984)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활동, 즉 첫째) 자료의 축소(자료의 선정과 응축, 범주화, 주제로 세분화시키기), 둘째, 자료의 배열(자료가 의미있는 바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감소된 자료를 다이어그램, 그림, 시각형태로 표현하는 것), 셋째, 배열된 자료로부터 의미도출을 하는 결론도출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자료분석의 절차는 크게 전사(transcription), 주제별 부호화와 작용, 주제의 생성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한 김영천(1997)의 방식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전사(transcription)

질적 자료분석의 제 1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사하는 활동이다. 전사란 현장작업에서 수집하거나 기록한 자료들, 예를 들면 손으로 쓴 관찰내용, 녹음테이프의 내용, 현장자료들을 후속 분석을 위하여 깨끗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에 의한 자료관리와 글쓰기가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전사는 수집한 모든 내용을 컴퓨터 파일에 입력하여 저장하는 활동까지를 말한다.

2) 주제별 부호화

전사의 과정이 끝나면 연구자는 질적 분석의 다음 과정인 주제별 부호화(coding)의 개발과 적용단계에 들어간다. 상당한 양의 수집된 자료들의 읽기와 감상, 평가 그리고 계속적이고 순환적인 느낌과 반성적인 탐구과정을 통하여 원본자료가 갖고 있는 메시지와 의도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 바로 주제별 부호화이다. 주제별 부호화는 연구자가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텍스트(text)의 특정한 부분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쟁점을 언급하고 있다고 느낄 때 연구문제나 자신의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그 텍스트의 특정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여 주는 주제로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Miles와 Huberman(1994)에 따르면 일련의 원본자료를 특정한 용어나 이름으로 함께 묶는 연구활동으로서 부호화는 특정 원본자료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주제적 용어라고 하였다(김영천, 1997: 156)

3) 주제(theme) 생성

전사와 주제별 부호화의 개발과 적용과정의 완료되면 연구자는 주제 또는 의미의 생성작업에 착수한다. 연구자는 주제별 부호화의 활동을 통하여 원래의 자료들이 특정한 개념이나 범주, 또는 주제들로 특징화되거나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연구자는 도출된 다양한 부호화의 면밀한 읽기와 분석, 그리고 추론을 통하여 이들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 또는 의미를 생성하도록 노력한다.

5.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현장작업과 분석작업이 모두 끝나게 되면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작업이 잘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도출한 연구결론이 타당한 것인지를 평가해 보아야 하는 데 이 작업이 타당도 검사작업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가정은 실재가 총체적이고 다원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고정된 객관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자료의 타당도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다.

질적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는 자료의 진실성, 또는 자료의 적법성 그리고 연구결과와 타당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내적 타당도는 연구주제의 개념화 과정, 자료수집, 자료분석과 해석 등 연구문제에서 연구결과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타당도이다.

특히 내적 타당도를 자료의 진실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때 내적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종택(1998)은 다각적 검증법(triangulation),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 연구대상자의 검토, 장시간 또는 반복적 관찰(prolonged and persistent observation), 동료 혹은 전문가의 검토(peer debriefing), 연구 전과정에 연구대상자 포함, 자료의 검증과 연구대상의 관점에서 자료의 해석 등으로 요약하였다.

다각적 검증법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자료수집과 연구결과 분석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오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심층적 기술은 설명할 대상에 대하여 밀도 있고 근접하게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로 하여금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된 지식정도로서 평가된다. 즉, 외적 타당도란 양적 연구처럼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에서 연구결과와 일반화 가능성 정도가 아닌 한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유사한 연구들의 일치된 결과를 통해서 지식의 일반화 가능성, 즉 외적 타당도를 평가받으며,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독자적인 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6. 글쓰기와 평가준거

연구자료의 분석과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도 검사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글쓰기와 보고서 작성활동에 참여한다.

전통적으로 연구자들은 논문을 작성하는 일은 그다지 문제삼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사전에 미리 규정된 양식(즉, 서론, 문헌고찰, 연구방법, 결과 및 논의)에 맞추어 끼워 넣듯이 하면 되었다. 자료수집 과정을 보다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결과를 해석하면 할수록 연구논문의 타당성은 더 높게 평가되었다. 주관적인 문장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단어를 쓰는 것은 편견이 담겨있다거나 사적 견해라는 취급을 받고 무시되어 왔다. 문체가 없이 글을 써야만 하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문체 없이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문체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연구자 자신이 경험한 현장과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인 의미를 가진 창조적인 과정이다. Sparkes(1995)는 질적 체육교육 연구자들은 자신의 글쓰는

방식에 대한 반성적 인식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론 영역에서 연구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체육교육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최의창, 2001).

지금까지 합법적이고 유일한 표현방식으로 인정되어 온 실증주의적 글쓰기 문화는 인간과 사회현상의 기술과 표현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식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실험적 글쓰기, 사회과학 논문작성에서 인문학 표현방식을 적용하는 시도는 새로운 표현 전략으로의 방법적 반성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적 연구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실제적 글쓰기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김영천(1997)의 글에 제시된 Lincoln과 Guba(1989)의 질적 작품의 평가준거 네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질적 작품 평가의 첫 번째 준거는 복합적 실재의 기술이다. 이는 질적 연구자가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단선적이거나 획일적인 특정한 관점만을 제공하기보다는 복합적 실재(multiple realities)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연구자는 특정한 집단(교사, 행정가)의 해석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행정가, 학생, 부모 등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현상을 이해하는 보다 근접한 방법이다.

두 번째 평가준거는 수사학적 표현의 완성도이다. 이 준거는 수사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이야기가 얼마나 문학적으로 유려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지고 표현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구자의 문학적 표현능력이나 재능과도 관계가 있다. 이것은 문체나 표현기법이 수사적으로 완성도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실험정신, 반성적 사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동원해야 함을 말한다.

세 번째 평가준거는 행위준거이다. 이것은 독자가 비판적인 의식이 각성되도록 글이 지적 자극과 신선한 충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이는 질적 작품이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품이 독자로 하여금 인간의 사회현상을 재해석하도록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를 의미한다.

네 번째 평가준거는 적용과 일반화 정도이다. 이는 독자가 읽고 있는 질적 작품을 자신의 현장과 관련시켜 비교하고 평가해 봄으로써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독자가 처한 상황에 적용하여 일반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N. 끝맺는 말: 새로운 희망

이 글의 목적은 현대의 체육학 연구에서 만병통치약과 같이 취급되어 남용되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연구절차와 통계적인 방법 이외에도 정당하고 근거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존재함을

논하고자 하였으며, 그 대안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체육 또는 스포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상호 주관적 이해에 관심을 두는 질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과학적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이다”(Gadamer, 1975; 홍기형, 1995, p.31) 라는 말은 질적 연구의 특징을 간명하면서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자연과학의 절차에 따라서 상투적이고 판에 박힌 통계모형을 따라야만 좋은 연구라는 생각은 변해야 할 것이며, 스포츠 상황이나 체육교육 현장에서의 인간행동의 상호 주관적 의미와 상황의 실재를 직관적 통찰을 통해 귀납적으로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를 통한 실행연구(action research)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과학적 연구절차보다는 참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 필자의 용어 “새로운 희망”의 은유가 시사하는 것처럼 질적 연구를 통한 학교 체육현상에 대한 현장연구는 체육교사들에게 체육현상에 대한 대안적 이해와 논의를 위한 새로운 지식체계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규·윤명희(2001). 체육교육 연구동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 8권 제1호, 1-24.
- 김영천(1997).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학연구*, 제 35권 제 5호, 135-170.
- 김종택(1998). *체육과 운동과학을 위한 운동학연구법*. 서울: 대한미디어.
- 박성희(1997). *상담학 연구방법론*. 서울: 양서원.
- 신옥순(1991). *교육연구의 새 접근: 질적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유진(1993). 질적 스포츠 심리학 연구: 대안적 패러다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 4권 1호, 3-18.
- 조용환(2000).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의창(2001). 체육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발전·현황·전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8권 제 1호, 25-58.
- 홍기형(1995).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서울: 문음사.
- Goetz, J. P., & LeCompte, M. D.(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Orlando, FL: Academic Press.
- LeCompte, M. D., & Preissle, J. (1993).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2nd. ed.). New York: Academic Press.
- Martens, R.(1979). About smocks and jock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 94-99.
- Sparkes, A.(1995). Writing people: Reflections on the dual crises of representation and legitimation in qualitative inquiry. *Quest*, 47, 158-195.